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

- 올해 첫 한국 국가신용등급 발표 -

-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및 국가시스템은 악화되지 않을 것 -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 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우리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피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美 신정부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25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당초 2.0% 전망) 다만, '26년부터는 소비 및 설비·건설 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Fitch가 제시한 향후 신용등급 조정요인

- ▶ (상방요인) ① 다른 AA 등급 국가 수준으로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
②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하향 경로 유지
(성장 전망 상향, 고령화 지출 소요 완화 등)
- ▶ (하방요인) ① 정치적 교착 장기화에 따른 경제·재정정책 효과성 훼손
②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현저한 상승
③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재정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수입 회복 및 지출 통제 노력에 따라 '24년 (GDP 대비 $\Delta 1.7\%$)에 비해 '25년에는 재정수지가 개선($\Delta 1.0\%$)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만, 올해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시했다.

이어 피치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25년에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높은 수준(GDP 대비 4.5%)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23% (피치 자체추정)에 달하는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강달러 현상 등으로 원화 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자본 유출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적대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2. 평가 및 대응

피치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 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작년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번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12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피치, S&P,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각각 두 차례 실시하여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출범시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2.11일부터 14일에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피치,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신용등급 담당자들을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피치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 링크 및 피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06-02-2025>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신정원 (jungwonshin@korea.kr)



참고 1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Moody's			S&P			Fitch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⑤15.12.18	Aa2	stable	⑤16.08.08	AA	stable	⑤12.09.06	AA-	stable
15.04.10	Aa3	positive	15.09.15	AA-	stable	11.11.07	A+	positive
12.08.27	Aa3	stable	14.09.19	A+	positive	09.09.01	A+	stable
12.04.02	A1	positive	12.09.13	A+	stable	④08.11.09	A+	negative
10.04.14	A1	stable	05.07.27	A	stable	05.10.23	A+	stable
07.07.25	A2	stable	02.07.24	A-	stable	05.09.19	A	positive
06.04.25	A3	positive	01.11.13	BBB+	stable	02.06.27	A	stable
04.06.11	A3	stable	99.11.11	BBB	positive	02.05.13	BBB+	positive
③03.02.11	A3	negative	99.01.25	BBB-	positive	00.03.29	BBB+	-
02.11.15	A3	positive	99.01.04	BB+	positive	99.06.24	BBB	-
02.03.28	A3	stable	98.02.18	BB+	stable	99.04.26	BBB-	positive
01.11.29	Baa2	positive	②97.12.22	B+	negative	99.01.19	BBB-	-
99.12.16	Baa2	stable	97.12.11	BBB-	negative	98.02.03	BB+	positive
99.02.12	Baa3	positive	97.11.25	A-	negative	98.01.21	B-	positive
②97.12.21	Ba1	RUR(-)	②97.10.24	A+	negative	②97.12.23	B-	negative
97.12.10	Baa2	RUR(-)	97.08.06	AA-	negative	97.12.11	BBB-	negative
②97.11.27	A3	stable	95.05.03	AA-	stable	97.11.26	A	-
97.10.27	A1	negative	94.11.09	A+	positive	②97.11.18	A+	-
97.03.07	A1	stable	94.06.09	A+	negative	①96.06.27	AA-	-
90.04.04	A1	-	89.06.26	A+	positive			
①86.11.18	A2	-	①88.10.01	A+	-			

* (Moody's) RUR: Ratings under Review for Upgrade(+) or Downgrade(-)

- ① 각 신평사가 처음 우리나라에게 등급을 부여한 시기
- (Moody's) '86.11월, A2 (S&P) '88.10월, A+, (Fitch) '96.6월, AA-
- ② 외환위기 당시 처음으로 등급 하향조정 및 투기 등급 부여
- (S&P) '97.10월, AA-(부정적) → A+(부정적) / (Moody's) '97.12월, Baa3 → Ba1
- ③ 2003년 北 NPT 탈퇴, SK글로벌 회계부정 사건으로 전망 하향조정
- (Moody's) '03.2월, A3(긍정적) → A3(부정적)
- ④ 금융위기 당시 전망 하향조정
- (Fitch) '08.11월, A+(안정적) → A+(부정적)
- ⑤ 2010년대 들어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승후 현재까지 유지
- (Moody's) '15.12월, Aa2 (S&P) '16.8월, AA, (Fitch) '12.9월, AA-

참고 2

주요국¹⁾ 국가신용등급 비교 ('25.2월 현재)

구분	등급 ²⁾	Moody's	S&P	Fitch
투자 등급	AAA (Aaa)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호주, 싱가포르
	AA+ (Aa1)	핀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핀란드, 홍콩, 대만,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AA (Aa2)	한국 ,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한국 , 아부다비, 아일랜드(+), 벨기에, 영국	대만, 아부다비, 마카오, 아일랜드
	AA- (Aa3)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홍콩(-), 마카오(-),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체코, 프랑스	한국 , 영국, 프랑스(-), 벨기에(-), 체코, 홍콩, 아랍에미리트
	A+ (A1)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A (A2)	폴란드, 칠레	칠레,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A- (A3)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칠레, 포르투갈(+)
	BBB+ (Baa1)	페루(-), 스페인(+), 태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태국
	BBB (Baa2)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페루(-)
	BBB- (Baa3)	인도, 이탈리아	인도(+), 그리스(+), 페루	인도, 멕시코, 그리스
투기 등급	BB+ (Ba1)	브라질(+), 모로코, 파라과이(+), 그리스(+)	모로코(+), 베트남, 파라과이(+)	모로코, 파라과이, 베트남
	BB (Ba2)	남아공, 베트남	브라질	브라질
	BB- (Ba3)		남아공(+), 터키	남아공, 터키
	B+ (B1)	피지, 터키(+)	피지, 몽골(+)	몽골
	B (B2)	몽골, 캄보디아(-)	케냐(-)	케냐(-), 이집트
	B- (B3)	케냐(-)	에콰도르(-), 이라크, 이집트(+)	이라크
	CCC+ (Caa1)	스리랑카, 이라크, 이집트(+)	모잠비크, 파키스탄	스리랑카, 모잠비크, 에콰도르
	CCC (Caa2)	모잠비크, 잠비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CCC- (Caa3)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CC (Ca)	가나, 우크라이나		
	C	레바논,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SD/RD		레바논, 잠비아,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가나, 에티오피아	레바논, 잠비아, 우크라이나, 가나, 에티오피아
	D			

1)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 SD(S&P): Selective Default / RD(Fitch): Restricted Default

3) 국가명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등급 전망